

특별강연II

| 일시 2020년 7월 8일(수) ~ 7월 10일(금)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융합 미디어 트랙' 및
'미디어 공학 &
창업 트랙' 담당

한국PR학회,
한국광고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이사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원전

현대를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현저할 때 불확실성은 곧 '위험(risk)'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이제는 확실한 위협으로 우리의 일상과 공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확실과 위험이 일으킨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원전과 관련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원자력이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탈원전을 논하는 현재이지만 탈원전 시점은 요원한 미래로 느껴집니다. 또, 원전기술의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한국의 기술적 역량과 원전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효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공기 사고가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항공을 편리하게 활용합니다. 많은 영화가 항공 사고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고확률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낮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와 언론을 통해 또 정치적인 이유로 가공되어 확대 재생산된 원전의 위험성은 실제보다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아닐지 의문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부정적 정보에 본능적으로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가 점령해버린 현대 콘텐츠 환경에서 원전 관련 정보에 대한 왜곡은 더 커질 것이고 부정적 정보의 확산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타당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를 '재난(disaster)'이라고 부릅니다. 재난 이후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난을 막기 위한 인적 그리고 기술적 노력은 단연 제1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혁신 가운데 원자력이 재난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한 과거의 재난들은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자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가짜정보의 범람과 시민들의 지각된 불안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조직은 대중에게 사실 기반의 과학정보를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그리고 대중의 위기감을 경감시키고 합리적 사고를 끌어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염병 발발 이후 급변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 소비 심리와 행태 그리고 미디어 기술의 혁신을 이해하고 원자력 관련 소통을 보다 고도화해야 합니다.

불안은 저항하면 나타나고 주시하면 사라집니다. 시민들이 불안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현상을 주시해 통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탈원전이 현실화될 먼 미래 시점까지 원자력이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자의 엄밀한 판단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